칼 럼

임 영 모 순천시 홍보전산과장

순천만국가정원에 여름이 찾아왔다

순천만국가정원에 여름이 찾아왔다. 해바라기, 수국이 자태를 뽐내면서 초록의 정원과 꽃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다.

여름의 순천만국가정원은 아름답고 시원하다. 이글거리는 태양을 가려주는 정원, 물과 나무, 꽃이 어우러져 도심 가까이에서 특별한 피서를 즐기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힐링 명소이다.

여름꽃에 한껏 취하고 호수정원은 시원한 풍광으로 더위를 식혀준다. 밤에는 낮과는 다른 신비롭고 몽환적인 느낌의 야경을 선사하고 있다.

순천만국가정원은 수많은 종류의 나무들이 쑥쑥 자라나면서 초록 그늘이 점점 짙고 넓어지고 있다.

세월이 흐를수록 정원은 더욱 풍성한 녹음을 드리울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는 새로운 여름 피서지로 자리잡을 수 있지만 조금은 아쉽다. 순천만국가정원은 조금씩 조금씩 달라져야 한다.

올 봄 지난해와는 다른 새로운 봄꽃축제를 열었다. 단순하게 꽃과 나무만을 보는 것이 아닌 아시아생태문화중심으로 도약하는 도시답게 퍼레이드, 마칭밴드 공연 등 정원과 어우러진 문화콘텐츠를 선보였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더 많은 관람객이 국가정원을 다녀갔다.

여름의 순천만국가정원은 밤에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필요하다.

여름하면 생각나는 것은 대부분 바다일 것이다. 밤바다 얼마나 낭만적인가. 하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여름밤에 다른 문화가 필요하다.

순천시가 올해 처음으로 순천만국가정원에서 물빛축제를 개최한다. 정원과 함께하는 새로운 밤문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 기획했다.

7월 14일부터 8월 31일까지 열리는 이번 물빛축제는 라이트 가든 연출, 물과 빛, 불꽃이 어우러진 워터라이팅쇼, 달빛 버스킹 등이 여름의 낭만을 선물한다.

라이트가든은 동문에서 이뤄지며 달콤한 빛, 아름다운 빛, 환희의 빛으로 장식한다.

워터라이팅쇼는 1일 3회 열리며 빔 무빙, 디지털분수, 레이저쇼, 불꽃놀이가 음악에 맞춰 역동적으로 움직여 환상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3D 매트릭스 프로그램을 활용해 워터스크린에 빛을 투사함으로써 관람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또, 관람객의 감성을 자극하는 달빛버스킹도 열린다.

순천만국가정원에서는 여름을 맞아 어린이 물놀이 체험시설도 마련돼 있다.

여름의 순천만국가정원은 그야말로 낭만적이다. 번잡함이 없다. 피곤함이 없다. 빛이 어우러진 그야말로 쉼이 있는 여름을 안겨주게 될 것이다.

순천만국가정원은 해마다 나무들이 자라면서 초록 그늘은 더 넓어지게 되고 여기에 새로운 문화콘텐츠로 채워지면서 지속적으로 발전을 꾀하고 있다.

단순한 축제나 이벤트가 아닌 문화를 입히고 있다.

올해는 1년 내내 꽃과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봄과 가을 뿐 아니라 여름, 겨울 비수기 시즌에도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정원 내 행사와 축제를 융합해 사계절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봄에는 봄꽃축제, 여름에는 물빛축제가 열린다. 가을에는 순천만국제교향악축제, 동물영화제가 열리고 가을 대표 축제로는 정원갈대예술축제를 개최해 축제의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

겨울에는 지난해 처음으로 개최해 호응을 얻은 순천만국가정원 별빛출제가 진행될 예정이다.

사계절 축제는 순천만국가정원의 지속발전 뿐 아니라 아랫장, 청춘창고, 청춘웃장, 문화의 거리 등 원도심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계획이다.

세계5대 연안습지 순천만을 보전하기 위해 2013년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개최하고,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없던 새로운 정원문화를 만들어냈다.

중앙정부에서도 인정하여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으로 탄생했다. 순천만국가정원은 해마다 500만 명 이상이 찾는 힐링의 명소가 됐다.

단순하게 꽃과 나무가 아닌 문화를 곁들인 콘텐츠로 365일 즐길 수 있는 정원을 만들어가고 있다.

올해 1년 내내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정원을 테마로 운영해 580만 명의 관람객을 목표로 하고 있는 순천만국가정원은 단일 관광지로는 최대 관광지의 명성을 지켜가고 있다.

社 說

자동차 보험료 인하해야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료 인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국민 생활비 절감을 우선 과제로 두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보험사를 압박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는 실손보험료 인하 압박을 시작으로 불합리한 보험체계 전반을 수정하라고 강하게 밀어부칠 계획이다.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줄지어 검토하게 된 까닭은 영업수지가 좋아져서다. 적자만 보던 자동차보험료가 올해 손해율이 큰 폭으로 개선돼 흑자를 냈기 때문이다. 손해율은 가입자에게 받은 보험료 대비 보험사가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출했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수치가 낮을 수록 보험사 흑자는 커진다.

실제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올 들어 5년 만에 처음으로 70%까지 내려갔다. 삼성화재 76.3%, 현대해상 77.8%, 동부화재 77.5%, KB손해보험 78.4% 등 대형사들의 1분기 손해율이 5년 만에 하락한 것이다. 한화손보의 올해 5월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78.2%로, 지난해 같은 기간(84.9%)보다 6.7%포인트 개선됐다.

영업수지 개선 이외에도 정부의 보험사 압박이 자동차보험료 인하에 결정적 요인이 됐다는 해석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보험사들이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자체적으로 가격 인하에 동참했다는 설명이다.

올해 1분기 손해율 개선에 힘입어 대다수 손보사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순이익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보험료 인하 압박이 거셌다. 하지만 당시 보험사들은 요지부동이었다.

그런데 정부의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가 지난달 21일 실손보험료 인하 방안을 발표하자 보험사들의 가격 인하 움직임이 현실화된 것이다.

불합리한 보험체계를 전체적으로 수정해야 하는 것은 가입자에 대한 당연한 도리다.

정부는 지금까지 보험사들이 불합리하게 이득을 누린 것에 대해 대대적으로 수술을 해야 할 것이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사이버범죄 예방을 위해 나타난 '경찰청 사이버캅'

인터넷에서 중고물품거래나 번개장터 등을 통해 거래를 해본사람이라면 누구나 "혹시 인터넷 물품은 정품일까? 돈을 송금 시 물건이 제대로 올까"라는 걱정을 한 번쯤은 해보았을 것이다.

이렇듯 인터넷의 발달은 우리의 생활에 많은 편리함을 주었지만, 한편으로 다양한 신종 용어와 함께 수많은 사이버 범죄를 만들어 냈다.

사이버범죄는 2014년 110,109건 2015년 110109건, 2016년 153075건으로 매년 사이버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며 수많은 사이버범죄에 우리는 무방비로 노출되어있다.

대표적인 사이버 범죄로는 인터넷물품사기, 스미싱, 파밍일 것이다.

많이 들어보았지만 정확히 어떤 범죄인지! 어떤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인터넷거래에서 현금거래를 유도하며 다른 상품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허위광고로 소비자의 돈을 편취하는 인터넷 물품사기, '무료쿠폰', '돌잔치초대장' 등을 내용으로 하는 문자메세지를 전송하여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취되어 개인정보 및 소액결제피해를 보게 되는 스미싱

쪽지나 이메일로 악성코드를 전파해, PC를 감염시킨 후 소비자를 가짜사이트로 유도하여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 파밍이다.

경찰청에서는 위와 같은 전자상거래등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사이버캅'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였다.

이름그대로 사이버상의 안전한 거래를 위해 만들어진 앱으로 안드로이드와 애플사의 기기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14년6월에 처음 출시된 사이버캅 어플은 현재까지 기능과 효과를 개선해 가면서 수많은 중고거래, 인터넷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는데 아직도 모르는 국민들이 너무 많아 이를 알리려고 한다.

사이버캅의 가장 눈에 띄는 기능은 거래 상대방의 휴대폰과 계좌번호를 통해 과거에 이번호를 사용해 물품거래사기의 전적이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중고나 인터넷상의 물품 거래를 할 경우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거래 계좌번호를 입력함으로써, 과거 사기 전적에 대한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사전에 물품거래 사기를 예방 할 수 있다.

또한, 사기거래에 사용된 전화번호나, 문자사용 시 경고창이 활성화되고 신규 금융범죄 발생 시에는 사전 고지, 메시지 URL의 스미싱 여부와 악성 앱을 탐지하고 제거하는 기능을 발휘하는 등 안전거래, 피해방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빠르게 변해가는 온라인세상과, 사이버범죄 속에서 우리 모두의 작은 관심과 주의가 필요할 때이다.

인터넷물품사기, 스미싱, 파밍을 한방에 예방 할 수 있는 사이버캅 어플리케이션! 우리가족, 친구, 지인등 모두의 안전을 위해 지금당장 설치를 권하고 싶다.

윤완 / 무안경찰서 경무계

신문으로배우는 千 字 文

東 동녘 동
西 서녘 서
二 두 이
京 서울 경

東西二京

▷뜻: 동과 서에 두 서울이 있으니 동경은 낙양이고 서경은 장안임.

등록번호 광주가00021 (일간)
湖南新聞
대표전화 (062) 224-5800
편집국 (062)222-5547
팩스 (062)222-5548
광고국 (062)222-5544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 5층)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명예회장 이신원 회장 정재조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논설실장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